

## 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수면·무장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고수면 환산과 무장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10일 고창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등에 따르면 고수 환산, 무장 공공임대주택은 작년 1차 입주자 모집공고 후, 잔여 세대에 대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 신청기간은 3월21일 오전 10시부터 3월23일 오후 4시까지다. LH청약센터(인터넷·포탈)를 이용해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3월23일 오후 1~4시 고창읍내 휴먼시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6월20일 오후 5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입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석진 기자

부안해양경찰, 해상안전  
관계기관 안전관리 나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방자치단체,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 관내 군부대 등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봄철 농무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부안·고창군 일원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봄철 농무기 기간에는 서해안 지역에 짙은 안개와 함께 태풍, 강설 등 잦아들지 않는 기상 현상과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봄철 농무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부안·고창군 일원에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로컬JOB센터 운영사업 선정

## 인구감소 대응 대책 마련

부안군, 총사업비 2억5000만원 확보... 올해 2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집중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북도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해 부안로컬JOB센터(일자리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안로컬JOB센터는 군과 협업을 맺은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운영하며 센터장 등 총 4명의 일자리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고 부안을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임시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로컬JOB센터는 올해 관내 구

인 300명, 구직 300명 등을 직접 발굴·매칭을 통해 200명의 신규 채용 지원에 나선다.

또 관내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유관기관·기업 간 업무협약 10개소, 군내 이장단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운영, 동행면접 지원, 구직자 면접비 지원, 취업역량강화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컨설턴트가 구직자 발굴 및 상담을 통해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13개 읍면 이장단,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간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 고용시장 유입 및 숨겨진 일자리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안로컬JOB센터 운영사업 선정으로 관내 취약계층에게도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부안로컬JOB센터를 통해 군민친화형 고용지원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로컬JOB센터는 부안을 행정복지센터 3층에 임시 개소했으며 구인·구직 상담은 전화(☎ 063-584-8082~4)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국가유공자 보훈 가족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정읍시, 1억원 투입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 전기·가스 등 시설 점검 보수

정읍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더욱 존중받고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올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재원으로 지역 내 국가유공자 보호 가족 2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0만 원 이내에서 전기·가스 시설, 도배·장판 교체, 싱크대·창호 교체 등의 시설을 점검 보수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339-5454)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나라를 위해 온몸으로 헌신한 유공자분들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2021년부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가유공자 22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큰 효용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아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 행복누리터' 개관

고창군 아산면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 행복누리터'가 문을 열었다.

10일 오전 '아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개관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아산 어울림 행복누리터(아산면 녹두로 795)는 작은 목욕탕, 체력단련실, 체육관(다목적 강당)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 커뮤니티 센터다. 2022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약 97억원(국비 40억원, 지방비 57억원)이 투자됐다.

어울림 행복 누리터는 민선재지의 거점을 강화해 주민복지 서비스 기능을 높이고, 중심거점 소공동체로 육



성하기 위해 건립됐다. 지역주민들이 헬스 배구 등의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목욕까지 함께 하는 등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산면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어울림 행복 누리터에서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을 하며 화합을 이루고, 복합공간의 현명한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가지는 여가선용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석진 기자

## 부안군, 지방소멸대응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부안군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지방소멸대응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의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년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계획의 수립과 다각적인 인구활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부안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권익현 군수의 주재로 개최되었다.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미래전략담당관 등이 함께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주거 조성 지원, △육아·돌봄·출산 지원, △청년정책 지원,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0여개의 사업이 발굴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들을 융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정읍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선다.

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고비용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

고 농업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이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8종에 대해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 리터까지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 난방(차량) 171(91)원, 부생 연료 유 1호(2호) 207(97)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신규 생생마을 기초단계 11개 마을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0일 2023년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에 11개 마을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은 행정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직접 추진하거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여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생생마을 기초단계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마을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해 기존에 예정했던 전라북도 생생마을 6개에 추가로 부안형 생생마을 5개를 추가로 선정·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더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눈길을 끈다.

2월 공사를 통해 15개 마을이 접수하여, 심사결과 6개 전라북도 생생마을(개소당 5백만원 / 동진 팔왕, 진서 구진, 상서 저기, 하서 문수, 하서 석상, 출포 월평)과 5개 부안형 생생마을(개소당 4백만원 / 부안 감장, 동진 청운, 진서 원암, 백산 회포, 하서 금산)로 총 11개 마을이 선정되어 마을 변화 조기기, 마을 꽃길 조성, 마을 화단 조성, 마을 경관 개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공동체가 희망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분양 본격

## '지역 주거문화 바꿀 첫 1군 브랜드'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이 지난 10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정읍에서 볼 수 없었던 빼어난 상층과 실거를 선보이고, 청약 관련 규제까지 완화되어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집중되고 있다.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정읍시 봉소동 47-34 일원에서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707가구 규모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타인별 분양 가구수는 △84㎡A 222가구 △84㎡B 26가구 △84㎡C 28가구 △84㎡D 24가구 △84㎡E 277가구 △110㎡ 130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어 28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

20일 특별공급·21일 1순위 청약 진행  
정읍 최초 입주인 전용 골프연습장 등 설계

자녀, 노후모양, 기관추천 등으로 구성되며, 모집 유형에 맞는 세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주택을 보유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이 없고,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 여기에 현재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 10일) 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농장을 개설·보유하기만 하면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교통, 편의시설, 학교 등 인프라 우수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부농산 시장에서 강조되는 입지적 특장점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정읍역과 가까운 KTX·SRT 이용이 편리하며, 열차 이용시 서울까지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 정읍IC, 정읍 고척버스터미널도 인접해

전국 곳곳으로 이동하기 용이하다. 다수의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도 강점이다. 롯데마트, 아산병원, 한국병원, 경찰서(예정), 전주지방지원 정읍지법,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근 거리에 자리한다. 정읍북초, 수성초, 정읍서초, 정인중, 서영여고, 정읍제일고 등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며, 내장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하고 정읍천 산책로도 가까이 폐쇄됐다.

## ▲정읍 첫 1군 브랜드 걸맞은 독보적 상품성 갖춰

정읍 첫 1군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답게 일반적인 새 아파트가 갖추고 있는 설계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구조로 나와 입주인 편의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최고 29층 초고층에 남향 위주 동배치로 채광이 좋으며, 동간 거리가 넓어 개방감이 뛰어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투시도.

위할 수 있다. 지상에는 차가 다니지 않는 친환경 단지로 선보이며, 대규모 잔디 마당 등을 비롯해 단지 내 조경 면적을 약 35%로 넓혀 다채로운 수목과 꽃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1.076대(세대당 1.52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갖췄으며,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로 바로 진입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다. 입주인 커뮤니티 시설로는 정읍 최초로 아파트 안에 실내·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탁구를 갖춘 사우나 등이 설계되며,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국공립 어린이

스마트홈 앱을 이용하면 조명, 난방 등 세대내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 에너지사용량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도 가능하다. 또한, 첨단 보안 강화 시스템인 'Five Zones Security System'으로 입주인의 단지 외곽에서 세대 내부에 이르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Five Zones Clean Air System'으로 단지 내부에서 주차장, 통풍구, 엘리베이터 내부, 세대 내부를 포함하는 전화정 청정시스템 설비를 마련했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 내 실수요는 물론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관심이 많고, 수도권 등 타 시도에서도 문의가 다수 있다"라며 "정읍 첫 1군 브랜드 건설사만큼 기존 정읍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화 설계를 선보여 정읍 아파트 시장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입주자들이 지역 최고의 단지에 거주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 견본주택은 정읍시 하북동 745-5 일대(수성초 인근)에서 위치하며, 지난 10일~12일 매일 의무관객기, 무선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 증정 행사도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